

셰익스피어의 희극 「자에는 자로」 무대의상 연구

홍 선 옥

한양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Stage Costume of Shakespear's 「*Measure for Measure*」

Sun-Ok Ho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2012. 9. 17. 접수; 2012. 11. 2. 수정; 2012. 11. 6.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age costumes, examine and analyze their theoretical ideas in order to propose new designs and support the studies and advances of stage costumes in play.

The writer operated and produced the costume designs of Shakespeare's play, *Measure for Measure* as a costume director, which was played on September 16 to 17, 2011 at the Haneul Theater in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on September 3, 2011 at the Jinnam Munye Theater.

The study was followed by

1. Proposing a new modern point of view of the design of the traditional dresses in 16th to 17th centuries.
2. Expressing a symbolism based on personality, role and nature of characters in the play by a creative and modern image of the dress in color, line, and silhouette, which are basic factors of a clothes design.

Key Words: Stage costumes(무대의상), Play(연극), *Measure for Measure*(자에는 자로), Symbolism(상징성)

I. 서론

복식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표현이며, 그들 생활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다. 제2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복식은 착용자의 정체감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개인과 개인이 서로 작용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고 있다(유송옥외, 1999). 복식은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의식의 표현으로서 노출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수단의 하나이므로 한시대의 예술분야로서

그 시대의 예술양식(art style)을 표출하는 중요한 장르를 맡고 있다(정홍숙, 1999).

이와 같이 복식은 인간의 예술적 표현으로서 그 시대의 시각예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 연극과 같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만을 위한 복식을 무대의상이라 하는데(김현숙, 1995) 무대의상은 배우의 연기 이전에 먼저 그 인물을 표현한다.

즉 무대의상은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관객에게 그 착용자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선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

Corresponding author ; Sun-Ok Hong
Tel. + 82-2-2290-2140, Fax. +82-2-2290-2159
E-mail : oakhong1@naver.com

※ 이 논문은 한양여자대학교 2010년 1학기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에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며, 색상, 소재, 디자인 그리고 상징을 통해 전반적 무대효과를 더해 준다. 따라서 무대의상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 하에 철저하게 분석한 후 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나라(2010), 우보경(2008), 김유경(2002), 조우희·조규화(2001)는 주로 무대의상의 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고, 이지선(2009), 김지연·노운선(2007), 서지성(2006), 범서희·이인성(2010), 구민수(2005), 임경미(2001), 이은경(2001), 변지현(2006) 등은 등장인물들의 의상디자인을 극의 내용분석에 따라 비교분석 하거나 디자인 및 실물 제작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무대의상에 관해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오페라, 뮤지컬 무대의상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대본분석에 따른 주인공들의 의상디자인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장르가 다른 연극을 위한 무대의상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극에서의 무대의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종합예술인 연극무대의상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조사, 분석하여 극에 적절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연극 무대의상의 질적인 발전과 활발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9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9월3일(토)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공연하였던 셰익스피어의 희극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의 무대의상 제작 작업에 본 연구자가 의상제작담당자로 참여하여 무대의상을 디자인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학술단체에 게재된 논문 및 국·내외 단행본, 간행물, 전문서적을 참고하였고, 무대의상 개념과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시대적·복식사적 고증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또한 Shakespeare 작품세계에 관한 국외문헌과 영국 BBC에서 방영된 DVD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실제공연에 있어서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주요 등장인물의 역할 및 지위, 작

품의 성격과 주제 그리고 극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무대의상 디자인으로서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형하여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머리장식, 신발, 액세서리 등 의상 외 장식과 조명, 영상, 무대환경, 분장에 관한 효과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자에는 자로’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무대의상의 개념을 살펴본 후 시대적·복식사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대의상의 개념

무대의상이란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과 같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만을 위한 복식을 말한다(김현숙, 1995). Berneice Prisk (1996)은 무대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말하며 배우가 착용하는 의상, 신발, 머리장식,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무대의상은 무대 위의 중요한 시각예술로서 극에서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해준다(김영삼, 2007). 이는 의상이 자신의 역할, 직업, 민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집단의 소속 등과 같은 외모적 측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김순심외, 1995).

무대의상은 극의 주제와 사상을 암시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무형의 분위기를 각 장면에게 극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무대의상 디자인은 극의 성격을 파악하여 의상으로 각 장면의 무게 및 분위기를 조정해 주고 클라이맥스나 대단원으로 전개될 때 의상도 그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

무대의상 디자인방법에는 극의 시대적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독특한 스타일의 의상을 변형 없이 재현해 놓는 100% 고증방법(김현숙, 1995)과 복식사의 고증을 기초적 자료로 해서 여기에

현대인의 감각과 디자이너의 예술적 독창력을 적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의 결정은 디자이너 단독만이 아닌 작가, 연출가 무대디자이너, 조명가 등이 함께 회의를 하여 무대의상의 디자인을 고중에 의해 디자인 할 것인가 또는 복식의 이미지를 현대적 시각에 적용시켜 디자인 할 것인지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연될 극의 성격과 연출의 스타일 등이 이런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정홍숙, 1998).

현대에 와서 의상의 이미지는 의상디자인의 기본요소가 되는 색상, 선과 실루엣, 소재에 의해 형성되며, 이 디자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또한 의상의 선택 및 착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기능적 측면 보다는 심미성, 상징성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복식사적 배경 (16세기 말-17세기 초의 복식)

복식사학자 Blanche Payne, François Boucher, Phyllis Tortora, Keith Eubank는 복식의 형태나 종류의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 어떤 한 시대의 복식 종류나 형태는 바로 그 시점 전 시대의 복식의 형태나 종류가 함께 공존하다가 변형 또는 대체된다고 했다(정홍숙, 1998). 따라서 ‘자에는 자로’의 극중 배경으로는 집필시기와 초연되었던 시기가 1603-1604년이므로 복식의 시대적 배경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복식 등이 함께 착용되었던 시기였음이 짐작되므로 이시대의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남·여 복식의 특징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신상옥, 2012). 16세기는 예술의 부흥기, 종교의 개혁기, 자본주의의 출현기, 탐험과 정복의 세기로 일컬어진다.

16세기 복식의 일반적 특징으로 남자들의 기

본복식은 슈미즈, 과장된 더블릿, 호즈, 외투이다. 남자복식의 큰 변화는 몸에 꼭 맞는 형태를 기본으로 패드, 퍼프, 슬래시를 이용해 상체를 강조하여 남성다운 박력과 위엄을 나타내었으며(이정옥외, 1999) 상부는 크게 부풀려서 사각모양을 과장하고, 하부는 경쾌한 각선미를 표현해서 상중하경(上重下輕)을 원칙으로 하는 독특한 남자의 의상미를 구성했다(임원자외, 1998).

여자들은 가느다란 허리, 꼭 맞는 상의, 부풀린 스커트와 과장된 소매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이루었는데 이 시대 여자들의 기본 복식은 슈미즈와 코르셋을 입고 아래에는 파딩게일과 패티코트, 겉에는 소매를 부풀리고 목선을 가슴 깊이 내려판 로브를 입었으며 로브위에 외투를 입었다. 로브의 목둘레는 스퀘어네크라인이나 라운드네크라인으로 깊이 파여져 있어 많이 드러나는 목과 가슴 윗부분을 슈미즈의 프릴이나 망사, 화려하게 장식된 스토마커(stomacher)으로 가리거나 목걸이와 펜던트로 장식하였으며 여기에 보석과 자수 장식으로 새로운 복식미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었다(김중숙, 2007).

(1) 남자복식

① 슈미즈(chemise)

란제리 셔츠(lingerie shirt)라고도 하며, 16세기 초에 더블릿의 목둘레가 사각형으로 깊이 파여져 셔츠가 많이 보이게 되면서 중요한 의복이 되었다. 셔츠는 품이 넓고 비숍슬리브에 손목과 목둘레는 주름이 잡히게 구성되었고 셔츠의 옷감은 주로 흰색 린넨과 실크를 많이 이용하였다(신상옥, 2012).

② 더블릿(doublet)

더블릿 혹은 푸르쁘앵(pourpoint)은 16세기 남자들의 대표적인 옷옷이다. 영국에서는 1450년부터 셔츠위에 더블릿을 입었다. 더블릿의 형태는 허리선 아래로 스커트부분이 달린 것과 짧게 페플럼(peplum)이 달린 것이 있고, 소매가 달린 것과 없는 것이 있었다. 16세기 초기에는 칼라가 없이 스퀘어나 라운드의 낮은 목둘레였으나 중기에는 스탠딩 칼라가 달리고 후기로 가면서 칼라가 점점 높아졌다. 화려한 자수를 한 슈미

즈의 러플이 점점 커지면서 칼라는 따로 만들어 붙였으며, 앞여밈은 단추, 후크, 끈으로 여몄는데 단추는 촘촘하게 많이 달아서 장식적인 효과와 몸에 꼭 맞는 옷의 여밈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소매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꼭 맞는 것, 어깨에 퍼프가 있는 것,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풀리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는 꼭 끼는 것 등이 있다. 1545년경 이후에는 소매를 따로 만들어 진동돌레에서 끈으로 연결하였고, 소매를 붙인 진동돌레에는 윙(wing) 또는 에폴렛(epaulet, epaulette)라는 심을 넣어 둥글게 만든 장식 천으로 소매 연결부분을 가렸다.

옷감은 벨벳, 태피터, 공단 등을 사용하였고, 종류이하 계층에서는 모직,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다(김종숙, 2007; 신상옥, 2012; 정홍숙, 1999).

③ 저킨(jerkin)

저킨은 소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더블릿보다 옷길이가 길고 더블릿 위에 입었다. 초기의 저킨은 목둘레가 V자형이나 U자형으로 많이 파여 있고, 앞여밈은 그대로 터서 단추, 후크, 끈으로 여몄다. 1540년대에는 좁은 스탠딩 칼라가 달린 것도 있다.

소매는 손목길이의 직선적인 배래의 소매, 팔꿈치 길이의 부풀린 소매, 팔꿈치까지 부풀리고 손목까지는 꼭 맞는 소매 등이 있고, 행잉슬리브(hanging sleeve)가 달린 것도 있다(신상옥, 2012).

④ 호즈(hose)

르네상스시대에 바지의 형태를 이룬 호즈(hose) 혹은 쇼오즈(chausses)는 슬래쉬가 많아짐과 함께 부피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1540년 이후 16세기의 독특한 형태의 남자바지가 된 트렁크 호즈는 둥근 호박이나 양과모양으로 부풀린 형태인데 바지 길이는 넓적다리 중간 길이로 세로로 짜여진 것 같이 일정한 나비의 천이 허리와 아래만 붙어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성기를 덮어 싸는 코드피스를 끈이나 편으로 붙였고 후기로 갈수록 심해졌다.

옷길이가 아주 짧은 트렁크 호즈에는 캐니언즈(canions)가 꼭 맞는 브리치즈(breeches)형태로

붙어있다. 이 캐니언즈는 1580년대에 프랑스에서 유행하면서 바지를 뜻하는 것이 되었다.

1570-1600년경에는 베네치안(venetians)이라는 다소 험렁한 바지가 유행하였는데 형태는 허리에 주름이 있으며 바지의 윗부분이 풍성하게 넓고 무릎에서 좁아지며 무릎바로 아래에서 단추나 끈으로 여미게 되어있다(신상옥, 2012; 정홍숙, 1999; 조진애, 2002).

⑤ 외투

남자들은 더블릿이나 저킨위에 어깨가 넓고 풍성한 외투를 입거나 케이프를 걸쳤다. 앞으로 여미지 않고 벌어지게 하여 속에 받쳐 입는 옷이 드러나 보이게 입었으며 외투길이는 무릎길이의 짧은것과 발목길이의 긴것이 있는데, 긴것은 의식용으로 성직자나 고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다. 1580년대 유행된 맨딜리온(mandilion)이란 외투는 군복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탠딩 칼라가 달리고 행잉슬리브가 있는 영덩이 길이의 험렁한 옷옷이다. 양쪽 옆선이 터져 있어서 앞뒤의 몸판이 패널모양으로 되고 칼라와 가슴 윗부분만 단추로 잠그게 되어있다. 옷감은 벨벳, 공단, 나사지, 태피터, 브로케이드 등으로 만들었고 색상은 흰색, 검정, 빨강, 황갈색, 초록, 노랑, 자색 등이 있었다(신상옥, 2012).

(2) 여자복식

① 로브(robe)

가운(gown) 또는 드레스(dress)라고도 한다. 구성상 원피스 드레스 같지만 투피스로 되어있다. 상체는 몸에 꼭 끼게 하여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하였고, 스커트는 파팅게일의 형태에 따라 원추형, 원통형 실루엣으로 만들어 입거나 A자형으로 부풀려서 장중한 표현을 나타냈다.

칼라는 원형의 러프 칼라나 부채형의 매디치 칼라, 퀴 엘리자베스 칼라등으로, 이 시대의 로브를 특징지운다. 소매는 특히 슬래쉬가 많이 사용되었고, 양의 다리(leg of mutton)모양이 많이 애용되었다.

옷감은 값비싼 두꺼운 silk와 금실로 무늬를 만들어 짠 브로케이드, 벨벳 등이 사용되었고 여기에 갖가지 보석을 장식하였다.

② 슈미즈(chemise)

슈미즈는 좁은 튜닉형의 원피스 드레스로 속 옷을 말하는데(정홍숙, 1999), 로브의 네크라인을 슈미즈의 작은 러플과 섬세한 장식, 보석 여밈으로 장식하거나 로브소매의 슬래시 장식을 통하여 밖으로 보이게 하였다.

옷감은 주로 흰색 실크나 면이 사용되었다(김중숙, 2007).

③ 러프(ruff)

러프는 러플(ruffle), 프레즈(fraise)로도 불리며 장식칼라(collar)를 뜻한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의상을 어느 것보다 명확하게 특징져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1560년대에는 러프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을 붙여 화려하고 정교한 형태로 발달되어 갔고 1580년대는 러프의 전성시대로 거창한 주름장식이 두세 겹으로 되어있다(정홍숙, 1999).

④ 파팅게일(farthingale)

파팅게일은 베르튀가댕(vertugadin)라고도 하며,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원추형, 벨형의 버팀대이다. 허리를 조이고 hips를 크게 부풀린 이 실루엣은 귀족풍의 위엄, 박력,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색상은 흰색, 붉은색, 회색, 노란색 등 여러가지 색을 이용하기도 했다.

III. ‘자에는 자로’ 작가와 작품분석

1. William Shakespear의 작품세계

영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는 셰익스피어(1564-1616)는 생애 10편의 비극, 17편의 희극, 10편의 역사극, 그리고 장시와 소네트를 집필하였고, 국왕극단(The King's Men)의 작가 및 배우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생애와 작품 활동은 수많은 연구, 저술, 공연 등으로 해석되어 왔고 지지 받았으며 지금까지 재창조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그의 창작활동을 비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나 셰익스피어가 살아 활동하던 시기부터 그에 대한 비판은 항상 존재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영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으로 평가받고 특히 당시까지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중 많은 수가 아직도 관용구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시까지의 연극의 캐릭터들이 매우 진부하고 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해 셰익스피어는 사실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다층적인 캐릭터는 그의 작품이 다양한 해석으로 각색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으며 실제 시대와 상황에 따른 여러 장르로 공연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사후 40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물론 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는데 수많은 그림과 음악과 영화가 수도 없이 만들어졌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시인 벤 존슨(Ben Johnson, 1572-1637)은 ‘그는 한 시대가 아닌 만세를 위한 작가’라고 표현하였고,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는 ‘셰익스피어가 곧 연극’이라고 평하였으며 독일 문학의 최고봉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나는 셰익스피어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과거의 작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윌리엄셰익스피어, 2012. 08).

2. BBC방송 ‘자에는 자로’의 의상분석

이 공연은 영국 BBC(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서, 제작은 세드릭 메시나(Cedric Messina), 감독은 데스몬드 데이비스(Desmond Davis)에 의한 셰익스피어 컬렉션(The Shakespeare Collection)영상물이다. 본 공연에서 의상은 르네상스시대 배경으로 100%로 고증하지 않았으나,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색상은 대부분 어두운 색상이 사용되어 세트와 조화를 이루었다. 의상이 미치는 <표 1>과 같다.

<표 1> BBC방송 '자에는 자로' 의 의상이미지

등장인물	역할	의상 이미지	등장인물	역할	의상 이미지
빈센시오	공작		줄리엣	클로디오의 애인, 임신녀	
엔젤로	공작 대리인		마리아나	엔젤로의 약혼녀	
에스칼라스	보좌관, 노의원		미스트리스 오버던	사창가포주	
클로디오	간통한 오빠		로드윅	수사	
루시오	클로디오의 친구, 한량인		피터	수사	
이사벨라	예비 수녀		폼피	하인, 뚜쟁이	

3. 연극 「자에는 자로」의 작품분석과 무대 의상디자인 및 제작

1) 연극 「자에는 자로」의 스토리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는 1603-1604년경 집필되어 1604년 12월 26일, 런던에서 최초 공연된 것으로 알려진 세익스피어의 희극(Comedy)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감안하여 희비극(tragic comedy)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모호한 메시지와 형식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문제극(problem play)이라 정의하기도 한다(한국 세익스피어학회, 2000).

비엔나 공국의 공작 빈첸시오(Vincentio)는 헤이해진 비엔나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엄격한 성품을 지닌 엔젤로(Angelo)를 대리인으로 지명한 후 비엔나(Vienna)를 떠난다. 엔젤로는 자신이 노의원 에스칼라스(Escalus)보다 연륜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공국의 통치를 맡기기 전에 자신을 검증해주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공작은 출발을 늦출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자신은 로도윅 수사로 변장하여 돌아가는 사태를 관찰한다.

공작이 없는 동안 비엔나를 다스리도록 선택된 엔젤로는 관대했던 공작의 통치와는 달리 오래된 과거의 법률까지 적용하며 매우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린다. 그 과정에서 클로디오라는 인물이 혼전관계 죄목으로 체포되자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포주인, 오버던(Overdone)부인이 와서 클로디오(Claudio)가 줄리엣(Juliet)을 임신시킨 혐의로 감옥으로 끌려갔다고 알리고 매음 집은 철거되고 포주인(오버던) 여주인과 그녀의 하인 폼피(Pompy)도 체포된다. 루시오(Lucio)에게 클로디오는 줄리엣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줄리엣이 확고한 자신의 아내라고 설명한다. 엔젤로는 공작이 몇해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고대의 법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클로디오는 사형에 처해 질 예정이다.

목숨을 잃을 처지인 클로디오는 수녀원에서 예비수녀로서 수행중인 여동생 이사벨라(Isabella)가 완고한 엔젤로에게 자신의 구명을 위해 탄원

해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공작은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해 수도사로 변장하고 비엔나로 되돌아온다.

루시오는 이사벨라를 수녀원으로 찾아가 서원을 중단시키고 엔젤로에게 간청하여 클로디오의 구명운동을 하도록 설득한다. 이사벨라가 엔젤로 앞에 나와 오빠의 구명을 간원한다. 그녀의 주장은 점점 강해지고 엔젤로는 그녀의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정숙함에 매료된다.

다시 찾아온 이사벨라에게 엔젤로는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 바친다면 오빠를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사벨라는 엔젤로의 제안을 클로디오에게 이야기하자 엔젤로의 청에 응할 것을 부탁한다.

수도사로 변장한 채 국정을 지켜보던 공작은 이사벨라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엔젤로의 옛 약혼녀로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버림받았던 마리아나(Mariana)를 대신 엔젤로의 방에 들여보내 엔젤로가 어둠속에서 마리아나를 만나 그녀를 이사벨라로 여기게 만들어 클로디오의 목숨을 구하려는 계획을 한다.

한편 엔젤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디오의 처형을 명령하는데, 돌아온 공작은 간수를 설득하여 클로디오의 사형집행을 지연시킨다.

공작은 이사벨라에게는 엔젤로를 고발하게 하고 엔젤로의 악행을 모두 밝혀낸다. 이후 처벌을 청하는 엔젤로에게 마리아나가 평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와 결혼할 것을 명하며, 처벌은 결혼식 후에 하겠노라고 명한다. 공작이 사형수의 가면을 벗기도록 하자 클로디오가 살아있음이 밝혀지고 공작의 이사벨라에 대한 청혼으로 막이 내린다.

2) 등장인물의 특징분석과 의상디자인 및 제작

등장인물의 의상디자인에 있어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가 시대배경으로 짐작되므로 당시의 복식 형태를 기본으로 시대고증을 한 후 극에서 표현 하고자는 연출자 및 스태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의상의 이미지는 색상, 소재, 실루엣 등으로 극중 인물의 역할, 지위 및 성격과 작품의 주

제 그리고 극적 분위기등의 상징성에 중점을 두어서 현대 연극무대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의상 제작을 하였다.

다음은 먼저 등장인물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의상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빈센시오(Duke Vincentio)

빈센시오는 비엔나공국의 공작이다. 신부로 변장하여 사회 속에 만연된 여러가지 부패상과 어리석은 인간의 관념들을 엄숙하게 규탄하며 신의 섭리를 앞세운 자비를 내걸고 비엔나의 법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가 행사하는 자비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공작의 모습은 ‘왕권신수설’을 주창하며 의회와 잦은 충돌을 빚었던 James 1세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여겨진다(Levi Fox, 1987).

빈센시오의 상의는 공작이라는 지위와 극에서 James 1세 왕을 모델로 비교되는 역할로서 권위, 위엄 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소재는 황금색상에 금색실로 수놓아진 광택 있는 자카드를 사용하였고, 어깨에 패드를 두껍게 넣어 박력감과 당당함, 자신감 등을 표현해 주었다. 더블릿 형태를 디자인한 밑단에 흰색공단을 사용하여 공작의 정의감, 자비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칼라를 러플을 응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도록 하였다(그림 1).

(2) 엔젤로(Angelo)

공작 대리인이다. 공작이 없는 동안 매우 엄격하게 공화국을 통치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는 매우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캐릭터이다.

엔젤로의 의상은 그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암시하기 위해 화려하면서 대조되는 색상으로 과장되게 디자인 했다. 16세기 말 당시 더블릿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가미해서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짙은 초록색상의 화려한 큰 꽃문양으로 광택있는 자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양어깨에 두꺼운 패드를 넣었고 흰색공단으로 윙(wing)을 덧대어 어깨를 강조하였다. 칼라

는 당시 유행하였던 스텐딩 칼라를 응용하여 심플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극에서 비중 있는 엔젤로는 공작 대리인의 이중성을 색상으로 대비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2).

(3) 에스칼러스(Escalus)

엔젤로의 보좌관인 노의원 역할이다.

당시 의사, 법률가, 성직자와 같은 전문인들은 길이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입었다(조진애, 2002)는 문헌에 따라 에스칼러스는 공화국의 노의원으로 엔젤로와 같이 국정에 참여하는 귀족신분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길이는 발길이까지 길게 하였고, 중후함을 나타내기 위해 안정감 있는 짙은 초록색으로 광택 있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하였다. 판단, 정의감을 상징하기 위해 흰색 스텐딩칼라를 목 높게 만들었으며, 허리벨트를 매어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다. 앞여밈과 소매 끝부분에 금색 스티치를 넣어 상류층 신분의 사치스런 취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그림 3).

(4) 클로디오(Claudio)

클로디오는 이사벨라의 간통한 오빠이다. 그의 간통이 클로디오라는 인물의 성격을 명확히 말해준다. 연극 내에서 간통은 매우 큰 죄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에는 자로’가 보여주는 ‘죄’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성격을 보여 주는 다른 부분은 그가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엔젤로와의 하룻밤을 강요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두려움 앞에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클로디오의 의상디자인은 평범하나 왕성한 청년임을 상징하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움과 암울함, 슬픔 등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둡고 짙은 청색의 짧은 더블릿 형태와 속에 흰색셔츠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흰색 칼라를 달아주어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어깨는 패드를 두껍게 넣어 남성미를 강조하였다.

바지는 검정색상으로 당시 다리에 밀착되는



<그림 1>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2>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3>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4> 2011.09.16 극단촬영

양말과 트렁크호즈를 응용하여 엉덩이는 풍성하게 부풀리고 발목에 바지통을 좁혀 종아리에 꼭 끼는 스타일을 제시하였다(그림 4).

(5) 루시오(Lucio)

클로디오의 친구이다. 루시오는 저속하고 방자한 면이 있는 나쁜 인간성을 갖고 있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한량스런 행동은 이 희극에 몇 안 되는 웃음을 불러일으키므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루시오의 의상은 그의 한량스럽고 거짓을 일삼는 이중성을 암시하기 위해 상의색상은 화려하고 반짝이는 빨강색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대비시켰고, 사치스러운 금색 단추로 앞여밈으로 장식하였으며 더블릿과 저킨을 변형시켜 앞길과 뒷길의 길이에 차이를 두어서 현대화하여 디자인하였다(그림 5).

(6) 이사벨라(Isabella)

이사벨라는 예비수녀이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과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순결 숭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빠의 애원을 외면하는 어딘지 덜 성숙해 보이는 도덕성의 소유자로 그려져 있다.

이사벨라의 수녀복 디자인에 있어서는 순수함과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을 사용하였다. 절제된 라인과 약간 광택이 있는 면직물을 사용하여 단아하면서도 정갈해 보이는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단조

로움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여주인공의 역할 비중을 높이기 위해 머릿수건의 앞머리둘레에 반짝이는 비즈를 넣어 장식하였다(그림 6).

(7) 줄리엣(Juliet)

줄리엣은 클로디오의 애인이다. 클로디오를 무척 사랑하는 여인으로 후회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임신한 상태이며,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인으로 등장한다.

줄리엣은 2막3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희극에서는 등장분량이 적어 비중이 약할 수는 있지만 의상표현에 있어서는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스커트는 16세기 말에 유행하였던 중모양의 실루엣을 응용하였으며 임신한 상태이므로 바디스에 붙여서 하이웨스트 원피스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칼라는 러프칼라를 본뜬 모양으로서 라운드형으로 이중레이스로 장식하였고 소매는 16세기 말 당시에 유행되었던 양의 다리형 소매(**leg of mutton**) 변형으로 퍼프와 손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소재는 광택있고 실키처리된 면소재로 작은 원모양의 노란방아리 색상을 사용하여 밝고·사랑스러운 여인을 표현하였고 이를 더 한층 강조하기 위해서 앞가슴에 비즈장식을 하였다(그림 7).

(8) 마리아나(Mariana)

마리아나는 엔젤로 대리공작의 예전 약혼녀인데 그녀는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엔젤로부



<그림 5>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6>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7>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8> 2011.09.16 극단촬영

터 버림 받았으나 엔젤로와 동침하게 하는 공작의 ‘베드트릭’에 동참한 후에 그와 결혼식까지 이르게 된다.

마리아나의 의상은 약혼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하기 위해 어둡고, 차분하며 단조로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6세기 당시 여자가운(gown)의 형태를 문헌에서 살펴보면, 스캐어네크로 깊이 파여져 있고 옆선이나 앞중심에 트임이 있는 것이 있고 뒷중심에서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윗길과 스커트는 분리해서 재단하여 투피스 형태로 하거나 허리선에서 스커트를 주름잡아 붙여서 원피스드레스 형태로 만들었고 소매는 어깨에 퍼프가 있고 진동둘레는 맞고 손목으로 갈수록 통이 넓은 것 등이 있었다(신상옥, 2012)는 고중에 따라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선과 실루엣은 현대적으로 변형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공단으로 사용하였고, 색상은 진보라색과 연보라색을 혼합하여 차분하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장식은 단조로움을 표현하고자 자주색 큰 리본을 달아주었다(그림 8).

(9) 미스트리스 오버던(Mistress Overdone)

오버던은 비엔나 번두리의 사창가 포주이다. 그녀는 비록 음탕하고 무법적이지만 자신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경험이 많은 지해세계의 캐릭터이다.

사창가 포주라는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유희적이며 사치함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다. 색상은 밝은 진분홍 색상이며 소재는 광택 있는 실크이고, 포주임을 나타내기 위해 넥라인을 깊

게 들어냈고, 엉덩이둘레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단에 흰색 속옷이 살짝 보이도록 겹겹이 망사를 대어 부풀렸으며, 이를 타이트한 긴 스커트 위에 덧입게 하여 16세기 후기의 가운을 연상케 디자인하였다. 장식은 사치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어깨위에 반짝이는 비즈장식을 달아주었다(그림 9).

(10) 로드윅, 피터(Lodwick, Peter)

신부의 신분으로 가장한 로드윅과 피터의상은 일반 서민복으로 중세후기 케이프슬리브와 후드가 달린 가나슈(신상옥, 2012)의 형태와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된 후드와 케이프가 붙은 샤프롱(신상옥, 2012)을 모방하였으며 소재는 두꺼운 모직과 마직으로 사용하였고, 길이는 발길까지 하였으며 소매는 당시 유행했던 깔대기형으로 소매 끝을 넓게 디자인 하였다. 허리에는 서민을 상징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장식이 없는 굵게 꼬은 밧줄 끈으로 매게 하였다(그림 10).

(11) 폼피(Pompey)

폼피는 오버던의 하인이며 투쟁이이다. 매음업을 하는 미스트리스 오버던의 하인 겸 광대역인 폼피의 의상은 울이 굵고 남아 보이는 마스재로 라운드 넥크에 소매가 없는 상의로 허름한 웃음을 표현하고자 가장자리 울을 풀어 놓았고 조각 천을 상의위에 무질서하게 붙여 제작하였다(그림 11).



<그림 9>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10> 2011.09.16. 극단촬영



<그림 11> 2011.09.16 극단촬영

IV. 결론 및 제언

무대의상은 연극의 중심매체인 배우가 창조해 내는 인물의 성격을 외형상 드러내는 극적효과를 창출해내므로 무대의상디자이너는 연극의 연출에 따라 무대의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극단 Korea Shakespeare's Kids이 2011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9월3일(토)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을 공연하기위해 제작된 무대의상에 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의상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첫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여러 시대와 문화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어 왔다. 이에 실제공연에서는 극의 해석 또한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하며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출가의 접근방법에 따라 무대의상의 디자인은 극의 시대적배경인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복식사적 배경을 토대로 현대적 이미지의 느낌으로 변형된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둘째, 무대의상의 중요성은 작가가 제시한 언어체계로서의 텍스트를 변용하여 관객들에게 극과 배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적 기호체계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으므로 무대의상 디자인은 연극작품의 내용분석과 등장인물의 역할, 지위 및 성격, 작품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의상디자인의 요소인 색

상, 선과 실루엣, 소재를 통해 상징성을 나타내 새롭고 독창적이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제공연에 있어서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는 극중 배역 배우들의 무대의상이 다른 장식의 요소(액세서리, 머리장식, 신발등)가 배제된 한정됨이 있어서 그 한계성이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과 관심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공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대의상의 체계적인 연구와 제작비 투자를 위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구민수. (2005). 뮤지컬 ‘아이다’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삼. (2007). 공연제작 매뉴얼 시리즈 ⑬ - 무대의상.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중숙. (2007). 근세초상화에 나타난 서양복식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노윤선. (2008). 뮤지컬 ‘겨울이야기’의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디자인

- 학회지. 8(2), 111-124.
- 김현숙. (1995). *무대의상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 범서희, 이인성. (2010).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타난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복식*. 60(4), 45-57.
- 변지현. (2006). 오페라 '파우스트'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성. (2006). 뮤지컬 '불의 검' 공연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상욱. (2012). *서양 복식사*. 서울: 수학사.
- 우보경. (2008). 1990년대 이후 한국연극의 무대의상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경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외 2인. (1999).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이은경. (2001). 햄릿(Hamlet)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9). 체계적인 무대의상 디자인과정의 연구 : 뮤지컬 '드라큐라'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외 2인. (1999).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임경미. (2001). 무대의상의 한국적디자인연구 :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자 외 1인. (1998). *서양복식*.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윌리엄셰익스피어. (2012. 8). 십이야 한여름밤의꿈 도록(양정웅연출).
- 정홍숙. (1998). Shakespeare희곡 「Hamlet」을 위한 무대의상디자인연구. *복식* 36호, 149-165.
-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은희, 조규화. (2001).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 무대의상 연구 : 색채 상징성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학회지*. 5(2), 149-166.
- 조진애. (2002).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서양복식*. 서울: 경춘사.
-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0). *셰익스피어작품해설 (I)*.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한나라. (2010). *무대의상에 나타난 블랙의 미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eice Prisk (1996). *Stage Costume Hand-Book*. N.Y.: Harper & Row Publisher.
- Levi Fox. (1987). *The Shakespeare Handbook*, G,K.Hall&Company, 70 Lincoln Street, Boston, mass201ll.
- Susan B. Kaiser, 김순심 외 역. (1995).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